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11-15(정자동, 봉우빌딩4층), 전화) 031-719-7087, Fax) 031-719-2087, 담당) 조현정

문서번호 : 씨앗-16051 2016.11.03
수신 : 전국 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청소년시설 담당자
참조 :
제목 : 2016년 씨앗 주제도서(꿈/진로/직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본 도서문화재단씨앗(2007년 출범, 舊(재)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재단에서는 ‘꿈/진로/직업’을 주제로 잘 만들어진 책의 출판을 장려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책을 접함으로써 건강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도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6년 씨앗 주제도서(꿈/진로/직업)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2016년 씨앗 주제도서 목록 : 붙임 1 참조
- 대상독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신청대상 : 공공도서관, 중/고등학교(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제도서의 활용 및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3일 (목) ~ 11월 17일(목)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2 참조) 작성 → 이메일(seeart2007@naver.com) 제출
- 도서배포 및 지원사항
 - 지원내용 : 2016년 씨앗 주제도서 16종(18권) 및 홍보포스터
 - 지원대상 : 1,000개 기관
 - 지원기관 발표 : 2016년 11월 22일(화), 재단카페(<http://cafe.naver.com/seeart2007>)
 - 도서발송 : 2016년 11월 28일, 택배배송

붙임 : 1. 2016년 씨앗 주제도서 목록
2. 2016년 씨앗 주제도서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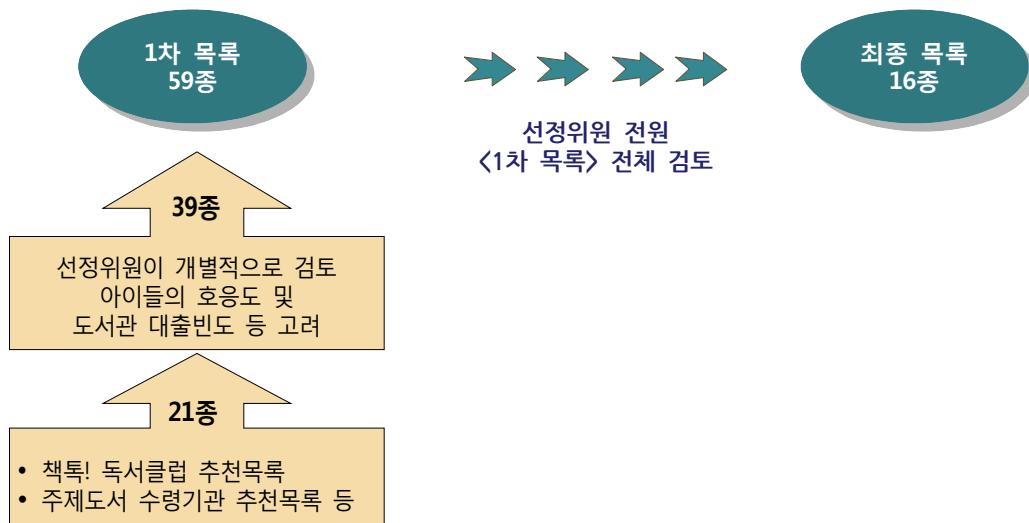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2016년 (2차) 씨앗 주제도서 선정

▶ 도서선정 : 16종 18권

- 대상주제 : 건강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꿈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는 책 (키워드 : 꿈, 진로, 직업, 삶 등)
- 대상독자 : 청소년 (중학생 ~ 고등학생)



▶ 도서선정위원

- 북큐레이터 안정희, 독서치료사 김용인, 담작은도서관(허성옥/김성란), 재단사무처(조현정/박명희)
-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해당 주제분야의 책을 직접 찾아 읽을 수 있고, 대상독자 의 시각에서 내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 선정기준

- 내용적 측면 : 돈 잘 벌고 화려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조명하거나, 그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관련 평전 포함) 또는 이런 스토리를 갖는 성장 소설이나 동화
- 형태적 측면 :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되 텍스트 위주의 책, 그림책, 만화책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 2016년 (2차) 씨앗 주제도서 목록 : 16종 18권 >

NO	구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2	소설	스피릿베어	벤 마이켈슨	양철북	2005
3	소설	모두 깜언	김중미	창비	2015
4	소설	불량한 자전거 여행	김남중	창비	2009
5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놀	2008
6	소설	빌리 엘리어트	멜빈 버지스	프로메테우스	2012
7	소설	홈으로 슬라이딩	도리 H. 버틀러	미래인	2010
8	에세이	고교생 레스토랑	오세웅	함께북스	2013
9	에세이	비숲 : 긴팔원숭이 박사의 밀림모험기	김산하	사이언스북스	2015
10	에세이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와타나베 이타루	더숲	2014
11	에세이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신동흔	샘터	2014
12	인물	나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박영희	살림Friends	2012
13	인물	사진에 미친놈, 신미식	신미식	비전과리더십	2010
14	인물	세상을 바꾼 십대, 잭 안드라카 이야기	잭 안드라카 매슈 리시아크	알에이치코리아	2015
15	만화	스트리트 페인터	수신지	미메시스	2016
16	만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1-3	요시다 아키미	애니북스	2009

책을 고르며 ...

구체적인 직업을 소개하거나 자기계발서 형태로 된 정보 위주의 책들보다 십대들의 고민과 부딪침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책들을 선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 중심의 책이 꿈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 아프고, 꿈에 짓눌려 힘겨워 하는 십대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십대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꿈과 진로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청소년기는 이제 막 ‘내가 누구인지’, ‘난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는 첫 출발선에 서있는 시기입니다.

진로와 꿈을 정해 달려가야 한다며 십대들을 억압하는 대신, 고민하고 부딪혀보는 것 자체가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임을 말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선정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진로를 정하지 말거나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 경쟁에 지친 아이들, 다 가니깐 나도 간다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현실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불확실하고 막연한 꿈을 꾸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가는 중’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른 이 책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이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이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현장’이라고 격려하며, ‘천천히 조금씩 단단한 내면을 갖도록 돋는’ 그런 친구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2012년 | 현대문학

책 소개

뚜렷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쓰야, 고헤이, 쇼타는 같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중 보육원이 혈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육원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사업가의 집을 털려다 경찰에게 쫓기는 상황. 시 외곽에 있는 나미야 잡화점에 몸을 숨기는데... 누군가로부터 이상한 편지를 받습니다. 사랑을 택할 것인가? 꿈을 택할 것인가? 안정적인 미래를 택할 것인가? 불안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등을 묻는 상담편지에 답을 쓰는 동안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이며 숨겨진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선정이유

미숙하고 결점 투성이인 젊은이 셋은 타인의 고민에는 관심이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으며 앞날도 불투명하죠. 그런데 과거에서 온 편지에 답장을 쓰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다보면 한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각각 흩어져 사는 듯 보였지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다른 이의 삶에는 또 다른 빛이 됩니다. 우리네 삶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렛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누가 먼저 시작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면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과거든 미래든 지구 반대편이든 한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것이 삶의 기적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피릿베어

- 벤 마이켈슨 지음
- 정미영 옮김
- 2005년 | 양철북

책 소개

문제아 콜은 친구를 폭행한 죄로 감옥에 가는 대신 원형평결심사를 통해 외딴 섬에서 유배생활을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콜은 자신이 지내야 하는 오두막을 불사르고 도망치다가 스피릿베어를 만나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오랜 재활치료 후 다시 외딴섬으로 돌아온 콜은 집짓기부터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쳐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폭행당한 후 아직까지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몇 차례에 걸쳐 자살시도까지 하던 피터를 어떻게든 돋고자 하는데...

선정이유

주인공 콜은 마음 속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콜은 외딴섬에서의 생활과 스피릿베어와의 조우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합니다. 청소년기 친구들은 콜처럼 작고 큰 문제들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성장에 따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로부터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딛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두 깜언

- 김중미 지음
- 2015년 | 창비

책 소개

강화도 농촌에 사는 여중생 유정이를 중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속 인물들의 따뜻한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언청이라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유정이 곁에는 엄마, 아빠 대신 유정이를 아끼는 작은 아빠와 베트남에서 온 작은 엄마, 무뚝뚝하면서도 은근히 정이 깊은 할머니, 그리고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번번이 티격태격하면서도 누구보다 유정이를 쟁기는 광수, 서울에서 전학 와 멀게 느껴지지만 자꾸만 신경 쓰이는 우주, 단짝친구 지희, 이들이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겪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가는 강화에서 13년 간 거주하며 알게 된 농촌지역의 현실적 문제들(다문화 가족, FTA, 구제역 등)을 담백한 필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정이유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합니다. 학교에 다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학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주변의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화를 내는지, 주위의 친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걱정하며, 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경험하고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알고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지레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읽어 보아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

- 김남중 지음
- 허태준 그림
- 2009년 | 창비

책 소개

6학년 호진이는 공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는 안중에도 없이 엄마아빠가 이혼을 한다고 하자 화가 난 호진이는 무작정 광주에 있는 삼촌한테 갑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삼촌이 이끄는 11박 12일, 1,100km를 달려야 하는 자전거 여행에 함께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함께 달리는 9명의 참가자와 호진이의 자전거여행 이야기입니다.

선정이유

우리는 각자 현재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잊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무언가를 해보는 건 어때요? 이 책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며 땀을 흘리는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싸워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의 행복한 삶을 지켜가는 호진이 삼촌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답니다.



책 소개

조지나는 아빠 없이 엄마와 동생 토비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조지나와 가족은 집도 없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게 됩니다. 엄마는 나름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불편한 것 투성이인 가족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친구에게 차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들키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에 큰 액수의 사례금이 있는 것을 보고, 조지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 옵니다. '개를 훔쳤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 사례금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번듯한 집을 얻어 살겠다'는 목표를 위해 조지나는 동생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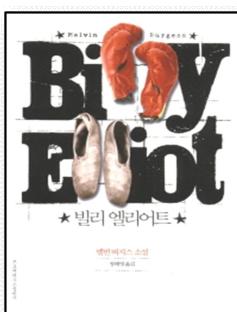
- 바바라 오코너 지음
- 신선해 옮김
- 2008년 | 놀

선정이유

꿈이라고 하면 참 거창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꿈이란 희망이고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닐까요?

주인공 조지나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가족과 함께 지낼 집'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범죄이긴 하지만 개를 훔쳐 사례금을 받아서 집을 구한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갑니다. 물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지나는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목표를 위해 조지나가 저지른 '개를 훔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나는 어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과연 그 꿈을 위해 얼마만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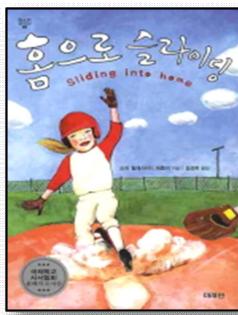
빌리는 아빠의 강요로 권투체육관에 다니지만 여자아이들이 하는 발레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틈만 나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레동작을 연습하는 빌리. 결국 아빠도 빌리가 발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의 유품인 피아노를 뜯어서 땜감으로 쓸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진 않지만 빌리는 아빠의 지지에 힘입어 런던의 발레리노 전문학교에 들어갑니다.

빌리 엘리어트

- 멜빈 버지스 지음
- 정해영 옮김
- 2012년 | 프로메테우스

선정이유

'빌리 엘리어트'는 영화를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보통 성공한 영화를 바탕으로 한 책은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영화가 보여주지 못하는 독특한 글 형식을 빌려 빌리의 생각을 보다 자세히 엿볼 수 있고, 빌리 아버지와 형에 대한 이해와 흥미 또한 더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빌리의 꿈을 지지해 주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아버지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은 한 소년이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혼자서 헤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소개

열네살 소녀 조엘은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학교팀에서 1루수를 맡을 정도로 재능이 있는 아이였죠. 그런데 전학을 간 학교에는 '여자는 야구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야구대신 소프트볼을 하라는 것이죠.

다니던 학교로 다시 갈 수도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조엘은 야구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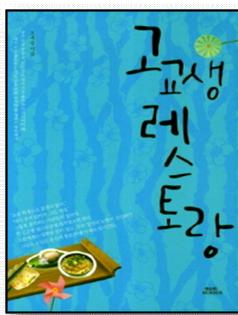
선정이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와는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부당해 보이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 나갈 때에도 그런 일들과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주인공 조엘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홈으로 슬라이딩

- 도리 H. 버틀러 지음
- 김선희 옮김
- 2010년 | 미래인



책 소개

일본 오우카 고등학교의 조리를립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인 '고교생 레스토랑'의 실제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를 사는 것부터 음식조리와 접객까지 고교생들이 모두 맡아서 하는 세계 최초의 고교생 레스토랑인 셈이죠. 1부에는 식당집 아들로 태어나 일류 요리사를 거쳐 오우카 조리학교의 열정적인 교사가 된 무라바야시 선생님의 이야기가, 2부에는 그 곳에서 사람농사를 짓겠다는 한 공무원의 야심찬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오우카 고등학교 조리과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마을과 학교의 멋진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고교생 레스토랑

- 오세웅 지음
- 2013년 | 함께북스

선정이유

우리나라에서 오우카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 보고, 십대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용기 내 보기를 권합니다. 물론 우리사회가 아이들이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시도를 먼저 해야겠지요. 지나치게 성적과 대학 진학만에 올인하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책 소개

영장류 생태학자 김산하는 인도네시아의 할리문국립공원에 연구캠프를 차리고 2년 동안 긴팔원숭이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합니다. 제목인 비술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비와 땅이 만나는 정글, 밀림, 열대우림'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작가가 동생과 같이 정글북을 읽으며 함께 생활하던 '방(공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수분과 영양물질, 무기물의 빠른 순환이 이루어지는 정글에서 긴팔원숭이를 관찰하며 생명의 다양성을 직접 목격하고 자연의 숨결을 피부로 호흡한 저자가 '비술'에서의 가슴 뛰는 모험을 생동감 넘치는 글과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술

- 김산하 지음
- 2015년 | 사이언스북스

선정이유

학원에서 몇 년 앞 선행학습을 하던 친구들을 보면 '왜 먼 미래를 위해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자신의 관심사보다 전망을 쫓아 입학원서를 쓰는 친구들 사이에서 씁쓸해 하던 아이. 동물을 좋아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고민하던 그가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학자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긴팔원숭이를 만납니다.

'꽉 막힌 도로' 대신 '남들이 가지 않는 반대편 길'을 시원하게 달려가는 엉뚱한 동물학자 김산하의 밀림 이야기는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없는데서 오는 충만감이 무엇인지, 목적지나 속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불어 세속적인 삶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 발견한 '지구의 모든 생명이 빛어내는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책 소개

일본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지금도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 시골에서 빵집을 열기 전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을 위해 시골로 이사하여 자연이 만들어준 효모와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며 참다운 시골살이의 모습과 행복한 삶의 의미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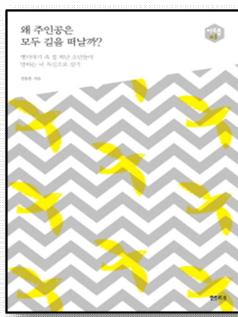
선정이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괜찮은 돈벌이'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을 향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다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는 삶이 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 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청소년기 친구들에게 바람직한 삶,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 와타나베 이타루 지음
- 정문주 옮김
- 2014년 | 더숲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 신동흔 지음
- 2014년 | 샘터

책 소개

이제 막 자아가 생겨나고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저자는 묻습니다. 여우누이, 장화홍련, 심청, 백설공주, 바리데기, 빨간모자, 장화신은 고양이 속 주인공들이 왜 하나같이 길을 떠나는지. 작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옛 이야기를 ‘떠남’을 주제로 재해석합니다. 집 안과 밖 두 개의 세상이 지난 공간적 의미, 머문 이와 떠난 이의 엇갈린 운명,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길을 떠난 이들의 변화 등을 살핍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온 작가는 무엇을 하고 살지 고민하는 십대들에게 옛이야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인생의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재능이 없다고 걱정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몸을 움직여 바깥세상과 접속하면 낯선 길 위에서 자신의 숨은 가치를 확인하고 마침내 빛나는 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다독입니다.

선정이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 편안한 집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은 귀찮고, 두렵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크나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혼자 떠나는 길 위에서 갸륵한 동반자들을 만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세상 만물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지닌 채 더 크고 새로운 곳으로 길을 떠나고,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어보라며 재미난 옛 이야기는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 박영희 지음
- 2012년 | 살림Friends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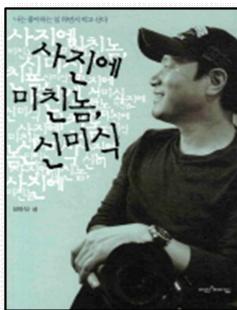
대학진학 포기, 고졸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직업 현장에 뛰어든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정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뚝뚝히 걸어가고 있는 10명의 청년들은 학창시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 남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대학에 진학한 83%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모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선정이유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 걸까? 가지 않는다면 실패자로 보는 건 아닐까? 공부가 싫은데, 왜 대학에 가야 할까?

대학에 대한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사회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10명의 청년 이야기는 맹목적인 대학진학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꿈꿔 온 삶을 살기 위해 용기있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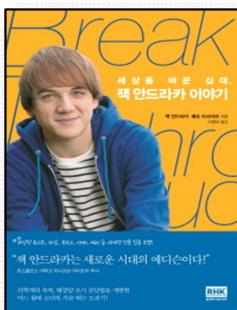
어려운 형편 속 13남매의 막내로 자란 신미식. 대학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다방DJ, 술집웨이터, 공사판 일도 하고 심지어 노숙자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후 잡지사에서 화보를 편집하다 '사진의 맛'을 알게 된 저자. 서른 살에 마주하게 된 사진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단돈 19만원을 들고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작가로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미식은 말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살며 빚에 대한 압박이 있었어도 사진작가가 된 것을 한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사진에 미친놈, 신미식

- 신미식 지음
- 2010년 | 비전과리더십

선정이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빠르게 앞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한 발자국씩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자 신미식은 서른이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미쳤야 미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미식의 이야기는 정말 간절한 마음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도 한 분야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때문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꿈에는 정해진 때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격려합니다.



책 소개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책 안드라카는 어려서부터 궁금증이 많았고, 지하실에서 각종 실험하기를 좋아합니다. 12살때 남들과 다른 성 정체성으로 인해 친구들의 따돌림과 끔찍한 비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시도까지 하지만, 나름대로 버티며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자신을 아껴주고 지지해주던 테드 삼촌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네 연구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마!'라는 삼촌의 말을 떠올리며 책은 췌장암 진단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꾼 십대, 책 안드라카 이야기

- 책 안드라카, 매슈 리시아크 지음
- 이영아 옮김
- 2015년 | 알에이치코리아

선정이유

책은 적은 비용으로 췌장암을 정확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기 까지 셀 수 없이 실패를 합니다. 실험을 위한 연구 제안서 또한 어른들로부터 끊임없이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왜 비싸고, 왜 정확하지 않은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논문을 뒤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끝내 키트개발에 성공한 책. 십대 청소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책 소개

올레마켓에 6개월간 연재됐던 동명의 웹툰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작가의 미대 시절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입니다. 졸업을 앞둔 아랑은 그림도 그리면서 돈도 벌고 싶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활기차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던 중 구청에서 모집하는 '거리의 화가'에 지원합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문화거리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나 초상화를 그리는 일. 거리로 나간 아랑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아랑은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스트리트 페인팅

- 수신지 지음
- 2016년 | 미메시스

선정이유

주인공 아랑은 대학졸업 후 자신의 첫 일자리로 자신의 열정이나 꿈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거리의 화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사회를 알아가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점차 애정을 갖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전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게 어떨까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벼운 터치로 보여줍니다.



책 소개

아빠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나자 엄마는 할머니에게 딸들을 맡기고 재혼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인이 된 세 자매는 카마쿠라의 낡은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만난 배다른 동생 스즈. 소아병동 간호사, 마을금고 직원, 스포츠용품 아르바이트생, 중학교 축구선수인 네 자매가 바닷가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저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1-3

- 요시다 아키미 지음
- 조은하 이정원 옮김
- 2009년 | 애니북스

선정이유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을금고 직원인 둘째 언니는 은행이 아닌 마을금고에서 하는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다가 '사람이 죽고 사는데 원치 않아도 돈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이 자신의 일임을 깨닫습니다. 다리수술 후에도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던 유타는 자신이 예전처럼 공을 잘 다룰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법한 에피소드가 요란스럽지 않게 그려집니다. 처음엔 별 감흥 없이 쉽게 읽혀지는데 책을 덮을 즈음엔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절로 권하게 됩니다.

방황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의문을 던지고 부딪혀가며 스스로 하루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십대 아이들의 일상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주제도서 신청서

※ 유의사항 : 필히 모든 항목을 작성하셔야 하고, 기관의 직인을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기관명	
주소(배송처)	(Tel :)
담당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핸드폰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위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메일 : <input type="text"/>

▷ 신청기관 유형 : 다음 중 한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중학교(도서관 외 학급문고 등)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도서관 외 학급문고 등)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수련관 / 문화의집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술요망)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복지관

▷ 확인 요구 사항

도서활용	<input type="checkbox"/> 별도 코너 마련을 통한 전시/열람 <input type="checkbox"/> 관련 독서 프로그램 진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술요망)
의무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 의무사항에 대하여 성실이행 약속 여부는?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주제도서의 개인적 활용, 파기, 외부반출(기증 포함), 판매행위 등의 금지 2. 만화를 포함하여 제공된 주제도서를 차별 없이 공히 활용하여 아이들이 다양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돋는다.
협조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 협조사항에 대하여 성실이행 약속 여부는?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도서수령 후 도서수령증 회신 2. 설문조사 참여
사업확인	(사업을 알게 된 경로를 기술해 주세요 : 인터넷 사이트명 또는 단체명 등)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일

기관명 : (직인)

(재)도서문화재단씨앗 귀중